

국제유가 하락 수혜... 한전, 3년만에 흑자

광주·전남 1분기 상장사 '코로나19' 실적 희비

자동차 북미·유럽 수출길 막혀 기아차 광주공장 수만대 감산 금호타이어, 매출 11.1% 감소...250여 협력업체 연쇄 파장

코로나19가 올해 1분기 광주·전남 상장사들의 실적 희비를 갈랐다.

북미·유럽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관련 산업과 유통업계는 10% 넘게 매출이 떨어졌고,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한국 전력은 3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17일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법인 이 최근 제출한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5곳의 총 매출액은 17조86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1208억원(0.7%) 감소했다.

15개 상장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4753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한전의 영향으로 지난해(-5942억원) 적자를 만회했다.

매출 하락을 기록한 기업은 총 8곳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우플러스(-19.9%)였다. 세화아이엠씨(-16.9%), 금호타이어(-11.1%), 조선내화(-3.1%), DSR제강(-1.6%), 금호에이치티(-1.2%) 등 광주신세계(-10.4%)와 한전(-1%)을 제외한 6곳이 제조업이었다.

보해양조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187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지

난해 5억5200만원보다 7억4500만원 줄어 들며 '적자전환'했다. 올해 1분기 적자전환을 낸 기업은 다스코(영업이익 25억7200만원)→-17억7000만원) 등 2곳이다.

매출액이 증가세를 기록한 곳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52.6%), 대우에이텍(26.2%), 금호산업(14.6%), 보해양조(3.9%), 한전KPS(3.3%), 다스코(2.8%), 부국철강(2.5%) 등 7곳이었다.

1분기 제조업계가 무더기 부진 실적을 낸 데는 광주 제조업 총생산액의 30% 상당을 차지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잇단 휴무 영향이 컸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해 사흘간 광주3공장 대형버스 라인에 대해서도 휴무에 들어갔으며, 지난 2월에도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14일간 부분 휴업을 벌였다. 반복된 휴업을 반복하면서 감산 피해만 수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잇단 휴업은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250여 개 협력업체까지 번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5497억원)보다 11.1% 감소한 4886억원을 기록했다. 코

■ 광주·전남 상장사 1분기 매출

(단위:억원·%)

	2020년	2019년	증감률
대우플러스	1074	1342	-19.9
세화아이엠씨	251	302	-16.9
금호타이어	4886	5497	-11.1
광주신세계	333	371	-10.4
조선내화	1852	1912	-3.1
DSR제강	461	469	-1.6
금호에이치티	541	548	-1.2
한전	15조931	15조2484	-1
부국철강	333	325	2.5
다스코	418	406	2.8
한전KPS	2511	2431	3.3
보해양조	187	180	3.9
금호산업	3570	3115	14.6
대우에이텍	2813	2229	26.2
우리금융	700	459	52.6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타이어 수요와 국내 외 완성차 업계의 휴무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량 감소가 실적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금호타이어 측 설명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공장 과성공장 등 국내 3개 공장의 가동을 멈췄고,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 2차 휴무를 진행한 바 있다.

광주·전남 소매 유통업체 가운데 유일한 코스피 상장사인 ㈜광주신세계 영업이익

은 무려 27%(37억원 ↓) 급감한 100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10.4% 감소한 333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연료비와 구입비가 1조6005억원 감소하면서 3년 만에 흑자를 냈다.

한전은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43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손실 6299억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전의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 1분기 1조 4632억원 이후 3년 만이다.

매출액은 15조931억원으로 1.0%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536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연료비의 경우 연료단가 하락으로 8813억원 감소했다. 다만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따라 석탄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12.1% 포인트 떨어진 60.4%에 그치면서 실적 향상에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구입전력비는 구매량이 8.4% 늘었는데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 구입단가가 내려가면서 7192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기판매수익은 1331억원 줄었다.

계약종별 판매 수익은 교육용이 11.0%로 가장 많이 줄었고 산업용은 2.3%, 일반용은 1.5%, 농사용은 1.2% 감소했다. 주택용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인해 3.7%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업 33% “코로나 6개월 더 가면 구조조정”

리서치앤리서치 매출 500대 기업 설문

국내 대기업은 코로나19 위기에 인력 감축보다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으로 버티며 생존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3~24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설문 결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취하거나 논의 중인 대응 전략으로 가장 많은 답변은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22.5%)였다.

이어 휴업·휴직(19.4%), 성과급·복지비 등의 급여 삭감(17.5%)과 같은 비용 절감 방안이 뒤를 이었고, 명예·희망 퇴직이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은 8.8%로 나타났다.

급여 삭감을 결정한 기업의 경우 직원 월급의 평균 7.9%, 임원 월급의 평균 15.0%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 삭감 폭을 묻자 응답 기업 78.6%가 0~10%라고 답했고, 10~20%(17.9%), 30~40%(3.6%) 순이었다.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논의하는 경우 평균 휴직 기간은 1.2개월로 조사됐다.

2주 이내 휴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가 지속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감축)을 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자 전체 응답 기업의 67.5%는 6개월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 등의 순으로 답해 응답 기업 3곳 중 1곳은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휴직 추진 기업 중 정부의 고용 유지지원금을 받는 곳은 19.4%에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휴업기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이라고 답한 기업이 과반이었다.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37.5%)가 가장 많이 꼽혔고,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용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충제도 도입(11.5%)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무역수지 71.6% '뚝'

광주세관 4월 수출입동향...코로나 여파 수출 52.3% 급감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4월 무역수지가 전년보다 무려 70% 넘게 감소하고, 수출도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의 '4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4.4% 감소한 24억3800만 달러였다.

수입은 전년 대비 36.5% 감소한 21억 5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71.6% 감소한 2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4.2% 감소한 9억700만 달러, 수입은 14.1% 감소한 4억5600만 달러를 기록해 4억51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타이어 수출이 52.3%나 급감했고, 수송장비(34.4%)와 기계류(30.5%), 가전제품(20.1%)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수출이 52.0%

감소한 15억3100만 달러로, 수입은 40.6% 감소한 17억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억71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수송장비 수출은 99.4%나 줄었고, 석유제품(63.5%), 철강제품(45.5%), 화공품(31.3%)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로또복권 (제91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자	
4 5 12 14 32 42	3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13,538,625	10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0,733,869	58
3 5개 숫자일치	1,370,115	2,571
4 4개 숫자일치	50,000	123,236
5 3개 숫자일치	5,000	2,064,778

광주 명품강소기업 1:1 전담지원 활동

광주지역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GFD'(Gwangju Field Director)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17일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최근 '2020년도 명품강소기업 GFD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전문가 32명, 민간 컨설턴트 및 산학협력교수 13명 등 총 45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올해 4년째로 운영되는 GFD는 명품강소기업을 대상으로 1사 전담 매니저로 1년간 활동하면서 각종 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술개발, 경영컨설팅, 해외마케팅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가다. 이들은 1~2개 기업을 전담으로 전 화상담은 물론, 수시로 기업을 방문해 현안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전담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을 피하는 방법 17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 2층 패션잡화 매장에서 초여름 햇볕을 막아줄 모자를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클래식 타일

지중해 스타일